

## 현대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嚴素禧\* · 金文淑

국립 원주대학 의상과 부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vant-garde's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So-Hee Eom\* and Moon-Sook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Design, Wonju National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aesthetic values and characters of the Avant-garde fashion through semantics analysis of Avant-garde's theory. Looking into Avant-garde atmosphere on fashion according to type analysis framework, Avant-garde expression on modern fashion are resulted from Avant-garde experiment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ner expressions of Avant-garde fashion in future dynamism, alien-hostile, and surreal-experimentalism are as followings (1) Reject tradition of existing fashion concept, (2) Dismantle costume material and inter-text characteristics in fashion field, (3) Laugh at material civilization and elite fashion, (4) Pursue primitive and fundamental sensibility on non-civilized world (5) Express human estrangement due to material civilization, (6) Remove the barrier of fashion between luxury and cheap ones, (7) Time, space and purpose is mixed, (8) Open concept as space structure independent of human body, 9) Complicatedness, ambiguity and expression of irregularity as changeableness, 10) Dismantle concept of beauty and ugliness.

As you see, fashion design in modern Avant-garde is pursuing newness as beauty of open concept, rejecting all modern tradition and allowing extremity such as experimental, illogic, unreasonable and non-formatted expressions.

## I. 서론

벨 에포크(1880~1905)를 기점으로 현대 패션은 기존의 전통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합리성에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대중문화의 혼재적 양상은 20세기를 지나 새로운 천년의 패션을 더욱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다. 실용적인 것보다는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향보다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 성향의 것으로, 파괴과 모방의 전위적 패션경향은 추의 형식적 원리인 무형식성, 부정확성, 기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현대복식에 파괴적이고 애매 모호한 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총괄하는 '아방가르드(Avant-Garde)'라는 용어는 최근 과거 어느 때보다 널리 쓰여지고 있다.

아방가르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현대 아방가르트 예술의 역사는 1900년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거의 1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마다의 문화권에서 反 문화적인 예술, 反 예술적인 예술, 非 예술 등으로 불리어져 온 아방가르트 예술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보급된 내오 다다이즘(Neo-Dadaism)의 정신을 근간으로 해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1960~1970년대에 어느 정도 일반화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된 아방가르드는 오늘날 서구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예술의 얼굴로서의 진면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방가르트 이론의 본질과 동기를 규명하며, 현재와 미래 패션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하여 사회 문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린 패션”으로서의 아방가르트 복식의 미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아방가르트 예술에 대한 분석으로써, 아방가르트 예술의 미학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아방가르트의 미적 실체 및 존재적 위상을 정립하고, 그 이론을 기초로 유형에 따른 분석적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복식에 나타난 아방가르트의 유형에 대한 분석으로써, 아방가르트 이론의 유형적 분석틀에 의거하여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트의 조형성 및 내적 의미를 분석한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윌슨(Elizabeth Wilson), 코다(Herold Koda), 마틴(Richard Martin), 폴헤머스(Ted Polhemus), 헤야와 덩월(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등은 최근 아방가르트 복식 경향에 대한 근원적 발생 원인을 모더니즘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문화적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러한 연구들은 국내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21세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식들과 새로운 스타일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그 근원을 중심으로 한 통문화적 시대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패션의 문화적 탈구, 부조화 현상, 무질서의 전개형태, 극도의 절충주의와 키치, 그리고 새로운 미의 개념의 정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미래 디자인을 예측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 II. 아방가르트 예술의 세계

### 1. 아방가르트 예술과 낯설게 하기의 미학

아방가르트<sup>1)</sup>라는 용어는 ‘좁게는 20세기초의 미래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의 역사적 아방가르트를 가리키는 한정적 용어이며, 넓게는 문학 및 예술 분야의 정신적 영역에서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전위적인 투쟁의 입장을 이념으로 표방하는 진보적 조류 또는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아방가르트 예술에 있어서 미학적 수용태도에 관한 것은 종래의 미학적 규준<sup>3)</sup>으로는 그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새로움’은 창작개념의 핵심이며 오늘날 그 자체가 양식화되고 상투적이 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20세기 이후 현대예술을 가능하게 한 아방가르트의 발자취가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곳 역시 이 새로움이라는 부분일 것이다. 즉 아방가르트 예술의 공통된 미적 실체는 전대의 가치체계, 예술 전통과 같은 과거의 정신과 형식에 대한 거부 그리고 그를 통한 새로움의 승배라 하겠다.

아방가르트는 후기 시민사회의 제반문화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 원인을 자율성 주의에 근거한

- 1) 아방가르트(avant-garde, v- n-garde), 즉 전위(前衛)는 원래 ‘전위부대’라는 뜻의 군사적 용어로서 전투 중 소속부대를 암호하기 위해 본 대에서 떨어져 나와 전초에서 활동하는 소수 정예부대를 가르치는 프랑스적 어원을 갖는다.<sup>1)</sup> 흔히 예술 상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대항하는 새시대의 급진적인 예술경향<sup>2)</sup>을 가리키는 현대적 의미의 아방가르트 개념이 붐을이기 시작한 것은 19C 중엽 이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방가르트를 미술 외적인(extra-artistic) 양식들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용어로서 정의하고자 하였다.
- 2) 임소희, 현대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트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8, p. 14.
- 3) Renaissance 以來 500년간 지속되어온 Platon의 도방론.

예술론에서 찾고 개별 예술 형식들이 갖는 자율성 개념을 하나하나 분쇄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존 가치관념에서 보면 '낯설게 하기'라는 부정적 미학적 특성을 그 존재적 실체로 보았다. 이러한 *Verfremdung*, 즉 낯설게 하기<sup>4)</sup> 미학은 독일의 미학자인 브레히트(V. Brecht)가 주장한 것으로 아방가르드 미학과 상통하는 바가 크다.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Verfremdung*) 미학<sup>5)</sup>은 일상의 부정의 부정을 통해 인식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연극의 총체적 과정으로써 기존의 부르주아 연극이 계급사회의 현실을 불변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주어 수용자로 하여금 현실의 모순을 객관화시켜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하기보다 수동적인 관객으로 머물게 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오히려 현상과 본질의 모순성을 보여줌으로써 관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브레히트는 그것이 낯설게 하는 것, 즉 소격(疎隔: 소외와 충격)효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이 효과를 위해 관습적인 기대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연출기법을 실험하였다. 그는 맑스주의 방법론에 따라 예술을 과학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정확한 과학적 방법론, 즉 귀납법과 방법적 회의, 과학적 실험 등을 예술에 도입하여 환각적 예술론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규칙을 단호히 거부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치명적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낯설게 하기의 한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또

한 브레히트의 이론은 단위적 경구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완결된 체계 속에서 독단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하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체계로 서술된다. 이론뿐 아니라 그의 예술방법론도 열린 체계에서 하나의 규정된 형식만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포괄한다.

뷔르거(Bürger)의 말대로, 시민사회의 예술개념과 의도적인 절렬을 시도한 것이 아방가르드<sup>6)</sup>라면, 19세기 리얼리즘과의 단절을 꾀하는 브레히트의 시도는 아방가르드적 지향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즉 형식 변화에 대한 브레히트의 사고는 전통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이라는 점과 작품 개개의 요인들이 독립성을 획득하도록 작품을 구상한다는 점, 그리고 열린 체계이며 제도예술에 대해 그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 등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의 긍정성과 상통한다. 그래서 뷔르거는 낯설게 하기의 정치적 효과가 바로 아방가르드 운동의 시도와 맺는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현대 복식의 탈 심미화, 추의 미, 모순 등을 미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미학적 근거<sup>7)</sup>를 제시해 준다.

## 2. 아방가르드 이론의 유형적 분류

러셀(Russell)은 아방가르드들의 특성을 시간적 역동성, 사회적 반목, 예술과 사회의 역사적 가능성, 그리고 심미적 행동주의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한다<sup>8)</sup>. 첫째, 시간적 역동성이란 "아

4) 이것은 'estrangement, ostranenie'의 번역어로, 러시아의 형식주의자 Shklovsky가 예술을 다른 표현 양식으로부터 구분해 내기 위해 처음 쓴 개념이기도 하다. 여기서 'Verfremdung'은 소외(疎外), 이화(異化), 소격(疎隔)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소외(Entfernung)는 브레히트가 후기에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화는 낭만주의의 다르게 보기와 혼용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당하다. 또 소격은 또다른 한자 번역이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낯설게 하기'로 번역하고자 한다.

5) *Verfremdung* 이론은 칸트의 유물론적 사고로 출발하였으나 칸트의 감정과 이성에 대한 주재이원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헤겔과 마르크스의 주재일치에 의한 변증법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예술의 목적에 대한 윌러의 영향과 레닌, 코르쉬 등의 맑스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며 브레히트화 하였으며 헤겔의 소외개념을 미학적으로 전용하여 발전시켰다. (손주현, "낯설게 하기 이론의 미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65).

6) Bürger, Peter, *Theorie der avant-garde*, 최성만 역,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 서울:심철당, 1974, pp. 154-155.

7) So-Hee Eom, Moon-Sook Kim, A Study on the Expression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the Aesthetics Theory of Verfremdu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Vol. 3 No. 1(2000, 2) 참고.

8) Charles Russell, *Prophets, and Revolutionaries* : The literary avant-garde from Rimbaud through post-modernism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238. 을 김옥중,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1992), p. 147에서 재인용.

방가르드 작가가 자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의 상황"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 반목이란 "아방가르드 작가가 현대문화의 심미적, 윤리적, 정신적 가치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예술과 사회의 역사적 가능성이란 "아방가르드 작가가 흔히 당대 사회의 진보적이거나 혁명적인 다른 세력들과 결합하여 어떤 이상화된 미래를 예견하는 입장"을 말한다. 넷째, 심미적 행동주의란 "문학적이거나 예술적 혁신이 예술과 삶, 사회의 의식과 표현 그리고 행동을 변혁시키는 동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말한다.

한편 포기올리(Renato Poggioli)는 행동주의, 적대주의, 전투주의, 그리고 니힐리즘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규명한다. 그런데 아방가르드를 특징짓는 이 네 가지 범주는 본질적으로 러셀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포기올리가 말하는 행동주의는 곧 러셀의 '심미적 행동주의'와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적대주의는 '사회적 반목'과 매우 유사하다. 전투주의

또한 적어도 주어진 문화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반목'이나 '시간적 역동성'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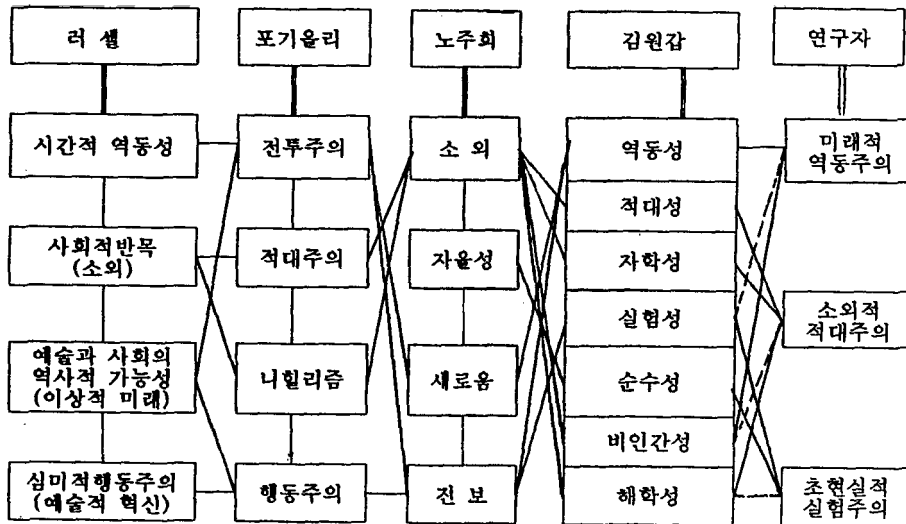
그리고 노주희<sup>9)</sup>는 소외, 자율성, 새로움, 진보 등 아방가르드의 여러 가지 범주로서 조명하고 있으며, 김원갑<sup>10)</sup>은 아방가르드의 심리적·미학적 특성으로 역동성, 적대성, 자학성, 실험성, 순수성, 비인간성, 해학성을 특성으로 꼽고 있다.

또한 아방가르드의 용어적 정의 가운데 아방가르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예술운동인 미래파와 다다이즘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미래를 향한 역동적 급진성, 과거의 모든 전통이나 인습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실험을 통한 초현실적 환상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방가르드의 특성은 <그림 1>과 같이 미래적 역동주의, 소외적 적대주의, 초현실적 실험주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미래적 역동주의

아방가르드 특성 중 미래적 역동주의는 미래주



<그림 1> 아방가르드의 유형적 특성

9) 노주희, "아방가르드 개념 정초를 위한 고찰-비판적 사회학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0) 김원갑, "현대 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의와 구성주의 예술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치오니(Umberto Boccioni)의 「떠나는 사람들」과 루솔로(Luigi Russolo)의 「자동차의 역동성」에서 보이는 속도에 관한 미는 기하학적 형태에서 시각적으로 축지되는 움직임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는데(그림 2), 이러한 새롭고 역동적인 미적 실체는 운동과 빛 그리고 소리까지도 유형화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며 색채의 역동적 사용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또한 듀상(Marcel Duchamp)이 고안해낸 레디메이드처럼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미'를 강조한 다다이즘은 미술의 영역뿐 아니라 현대 예술의 전반에 커다란 전환을 초래하였다. 한편 구성주의자 포포바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文(교육)은 빛이고, 문맹은 어둠이다'라는 선동적 포스터 등을 디자인하였으며, 타틀린, 말레비치, 로드체코 등은 모스크바의 혁명 기념물 계획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과 관련한 예술의 종합을 지향하는 경향은 예술가의 새로운 임무이며 유토피아적 이상으로써 견고한 실천적 양상을 띠었다.

이와 같이 미래적 역동주의의 미적 실체는 제도권의 형식주의적 미의 실체를 정면에서 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미래주의적 과학이미지



<그림 2> Luigi Russolo의 「자동차의 역동성」, 1912~13(*Giovanni Lista*, 1988:52)

로서ダイナミック한 운동감의 표현을 통해 움직이고 변화하는 반복적 리듬을 새롭게 인식하고 운동감과 속도미의 참미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Ready-Made의 오브제와 복합 재료주의를 통하여 카테고리를 확장하였으며, 셋째, 미학적 가치 기준을 발전시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는 세계 미술에 대한 그들의 지엽적인 면을 배제하고 과감하게 세계 미술의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새로운 예술로서 무장한 채 그러한 이념에 맞게 그들의 선언을 채택하였고,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현대미술의 많은 영역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 2) 소의적 적대주의

모든 아방가르드의 실험은 부정의 정신<sup>11)</sup>으로부터 탄생하며 그러한 모든 아방가르드는 부정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유지된다. 아방가르드들은 부르조아 사회와 함께 이 사회의 산물인 부르조아 예술을 파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부르조아의 고상한 취미와 기존의 제도권 예술에 대한 반대를 위해 예술을 사회와 결합하고 대중과 융합시키기 위해 키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에 염소수염과 콧수염을 그려 넣은 뒤샹의 작품 「L.H.O.O.Q.」(1919)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아방가르드는 독창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중과의 결별을 노리기 위하여 추상성을 이용한다. 추상의 표현은 라리오노프와 곤차로바의 광선주의(Rayonism)와 1913년의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의 결과로 인한 이미지는 소의효과(疎外效果)라는 특수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소의효과는 '낯설게 하기'에서부터 비롯되며 그것의 미적 실체는 소적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1962년 엘리코 바이는 역겨운 기계문명에 대한 자멸을 우스꽝스런 모습의 인물을 통해 조소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그림 3). 이것은 내면 세계의 표현을 통해 즐거움을 표현하거나 조롱을 통한 회화의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 역시 모

11) 포기울리는 사이도(Non Sydow)가 유럽사회의 부패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부정의 문화(Culture of negation)"라는 표현을 아방가르드의 일반적 정의에 전용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한다. (Poggioli, R., *The Theory of Avant-Garde*, Cambridge Mass, belknap/Harvard, 1968, p. 107.)



<그림 3> Enrico Baj, 「장군」1962  
(*Art Encyclopedia II*, 1986:899)

던문명에 대한 진지함과 아이러니가 교대적으로 대응하는 아방가르드의 소외적 특성으로 조롱과 기괴한 형태의 해학 속에서 자신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방가르드의 특성중 하나인 소외적 적 대감의 미적 실체는 모든 가치의 부정과 파괴로서 그것의 찬미는 첫째, 고상한 취미의 부정으로서 반 부르조아적 저항성, 둘째, 독창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중과의 결별효과를 노린 반 대중주의적 추상성, 셋째, 고상함에 대한 조롱으로서 반 권위주의적 해학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키치, 비정형성, 미적 소외, 맥락의 단절, 소외적 회화, 풍자적 왜곡 등의 조형적 언어가 사용된다.

### 3) 초현실적 실험주의

아방가르드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명칭들에서부터 다양한 실험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입체파, 다다, 초현실주의, 신 즉물주의, 판선주의, 기능주의 등은 철저한 실험적 기법에

관한 명칭들이다. '실험실적 방식'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의 실험주의는 20세기초 다다의 결과인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두드러진다. 초현실주의의 탄생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불안정한 사회, 공포의 분위기, 인간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현대 산업 물질 사회가 낳은 부조리 등의 요소가 현실 부정성을 초래함으로써 잉태된 필연적 결과이며 그것은 합리주의에 대한 도전이었고 꿈과 무의식의 탐구로서 현대적 환상 회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sup>12)</sup>. 즉, 다다이즘의 미적 실체로서 우연히 선택되어 배열된 사물의 인용방법과 메타피지카 회화<sup>13)</sup>의 비현실적인 회화 공간으로서의 미적 실체가 동시에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순수 회화적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해석을 가하기 시작했고,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의한 새로운 획기적인 미의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 4).

초현실적 실험주의 이념은 인간의 '정신해방'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실 속에서 표현된 미적 실



<그림 4> Salvador Dali, 1936  
(*R. Martin*, 1987:73)

12) 서홍익, "초현실주의 회화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29.

13) Pittura Metafisica는 형이상 회화로써 1917년 이탈리아의 키리코(Giorgio de Chirico)가 카라(Carlo Carra)와 함께 펠라에서 제창한 유파. (계간미술(편), 「現代美術用語辭典」, 서울:계간미술, 1984. p. 55.)

체는 첫째, 환상적 신비주의로서 은유적 에로티시즘, 테페이즈망, 트롱폴피이유에 의한 변용과 전위로 나타난다. 둘째는 우연성의 추구로서 자동 기술법, 객관적 병치, 팔라지, 데칼코마니, 프롯타지 등에 의한 마파에르적 실험성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알레고리적 양면성으로 이중코드의 개념과 밀접하게 표현된다.

### Ⅲ. 복식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을 미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미래적 역동주의, 소외적 적대주의, 초현실적 실험주의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복식에 표현되고 있는 아방가르드적 표현기법이 이미 20세기 초 역사적 아방가르드들에 의해 실험되었던 기법들에 기인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며, 또한 복식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조형성 및 내적 의미를 밝혀주게 될 것이다.

#### 1. 미래적 역동주의

##### 1) 미래주의적 · 과학 지향의 의복

복식에 있어서 미래주의적 과학이미지는 전위적 예술가들에 의한 무대의상으로부터 출발한다. 입체파의 파카소를 비롯하여 절대주의 작품과 의복에 대한 스케치로 유명한 말레비치, 그리고 포포바와 스테파노바 등의 러시아 구성주의 예술가들<sup>14)</sup>은 기하학적 형태를 의상 디자인에 시도하였으며 무대예술의 실험에 종사한 바우하우스 교수인 오스카 슬렘머(Oskar Schlemmer) 역시 신체와 동작이 기하학적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공연된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형적 요소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신체를 비 물질화 시키고 의상에 있어서 기계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초기의 예라 하겠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경향은 커팅 포인트를 이용한 인공적 미와 비밀상적 이미

지, 그리고 이질적 소재에 의한 하이테크한 표현을 통하여 '낯설게 하기'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코스모폴 록(Cosmo Corps Look), 스페이스 록, 하이테크 록이 대표적이다.

20세기 첨단 이론인 인공 두뇌학(Cybernetics)과 반항적 성향을 띤 Punk 스타일이 가상 현실 속에서 과학적 허구와 합성된 것을 의미하는 사이버 펑크는 현대 복식에 있어 과학 거부적 이미지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계적 과학 매개체를 중심으로 한 검정 가죽, 고무, PVC, 또는 매혹적인 테크노에 적용되는 전기 회로판과 케이블 같은 산업용 악세서리와 혼합된 의모를 보여주는 사이버 펑크 스타일은 과학이 낳은 소외와 단절의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컴퓨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반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히피, 펑크로 이어졌던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리가 과학을 이용한 사회 반항세력으로서 패션문화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모더니즘 이전과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보여준다. 즉 외형적 실루엣의 직설적 유추보다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소재, 색채 등을 통해 정신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조되며 과학의 찬양보다는 과학의 거부 이미지와 더불어 하이테크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그림 5).

또한 미래주의 예술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운동감과 속도의 미가 복식에 나타난 영향은 역동적인 색채에 의한 환영적인 움직임과 키네틱 아트와 같은 실제적인 움직임에 의한 표현이다.

복식에 있어 역동적 색채에 대한 심층적인 시도는 20세기 초 러시아 작품의 발전과 더불어 혁신적 색채를 사용한 소냐 델로네(Sonia Delaunay)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오르피즘의 미학<sup>15)</sup>을 바탕으로 '색채의 동시성'을 의상디자인과 접목시켜 현대 문명의 속도감과 기계적인 구조를 표현한 새로운 복식미를 제시<sup>16)</sup>하였으며 강한 색

14) Tatiana Strizhenova, *Soviet Costume & Textiles 1917-1945* (Flammarion, Paris, 1991) p. 186.

15) 오르피즘 큐비즘(orphic cubism)이라고도 한다. 1912년 입체파에서 갈려나온 델로네가 주창하여, 쿠프카 등이 펼친 색채성이 풍부한 입체주의의 한 분야에 불여진 명칭이다.

16) Hajo Düchting, *Robert & Sonia Delaunay* (Köln : Benedikt Taschen, 1994), p. 51.



<그림 5> J. P. Gaultier(92, 93 A/W)의 Cyber punk style(Polhemus, 1994:125)

체의 반복적인 대비는 옵 아트(Optical Art)의 성립에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옵 아트(Optical Art)는 복식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술경향으로, 1920년대의 비오네, 1930년대의 스키타파렐리, 1940년대의 루디 건릭, 란빈의 작품에도 보여지고 있다. 건릭은 1960년대 동시대의 대표적인 미술양식인 옵 아트를 이용하여 운동감에 의해 형성되는 유행적인 문양으로 인체가 왜곡된 듯한 착시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소재에 대한 이러한 실험은 모스키노와 장 폴 고틀리에 동전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환상적인 충격이 이어진다(그림 6).

미술사조상 '움직임'의 요소는 그림이나 조각의 한 요소로서 흔히 거론되어 왔으나 '움직임 자체'가 작품의 본질로서 설정된 것은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키네틱 아트에 의해서이다<sup>17)</sup>. 현대 복식에서도 종래의 관념을 무시한 소재 선택과 의상이 인체에 입혀져 표현되는 움직임,



<그림 6> J. P. Gaultier(96,97 A/W)의 작품(Collection II, p.14)

즉 운동감과 속도감 그 자체에 디자인 포인트를 갖춘 의상들이 발표되고 있다(그림 7). 실제적인 움직임은 복식디자인의 요소 및 원리를 응용하여 장식성을 통해 운동감과 박진감을 주는 것으로 착용자가 걷고 움직일 때마다 그 선들이 흔들리며 정지된 고정미가 아닌 운동감을 주어 시각을 자극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 명료한 메카니즘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시각적,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는 미묘하여 미래주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것은 의복이 몸에 잘 맞게 고정되어야 한다는 기성 관념에서의 탈피라 하겠다.

## 2) 영역간 경계 해체적 의복

1930년대 초현실주의 디자이너 스키타파렐리는 복식에 이질적인 소재를 도입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예술과 의복이 교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시도함으로써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념에 도전하여 다다와 초현실주의가 추구했던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개방하였다<sup>18)</sup>.

17) George Warren Rickey, 윤난지 역, 「키네틱 아트」(서울: 열화당, 1991), p. 78.

18) 엄소희 (1991), "초현실주의 예술사조와 의상디자인", 「원주전문대학 학술논총」 제17집, 1991. p. 13.





<그림 7> Paco Rabanne의 작품  
(*Dictionnaire De La Mode*, 1994:428)



<그림 8> T. Mugler(92 S/S)의 작품  
(*Mode et Mode*, No.277)

복식에 있어서 이러한 복합재료주의는 앙드레 쿠레쥬가 1967년 발표한 뉴 바디와 파코 라반의 금속 슈트로 계승되었으며, 1990년대의 뮤글러와 이색이 미야케 역시 다양한 유리 소재와 비닐, 모피 등 복합 재료를 통해 복식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 재료주의의 오브제가 주는 전위적 의미는 소재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 관념의 거부, 즉 전통적인 소재뿐 아니라 이질적인 재료인 PVC, 가죽, 폴리우레탄, 메탈리트, 종이 등을 과감히 도입하여 예기치 않은 낯선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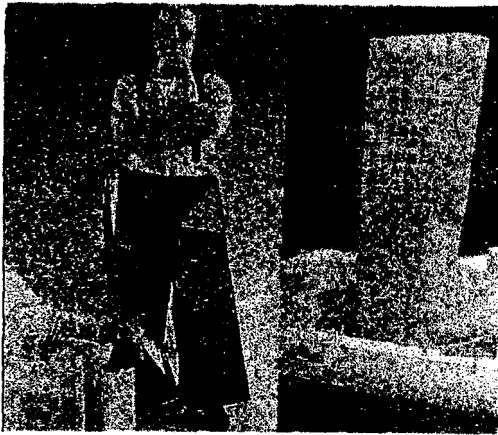
또한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일상적인 효용이나 역할을 박탈하여 단순한 오브제 그 자체가 작품의 재료로 등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레디메이드의 오브제는 대중사회의 통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량 소비사회인 상업문화 속에서 무한한 소재의 원천을 찾아내고, 기존 패션에 도전하는 이색적인 미에 대한 추구로써, 그것의 가치는 현대 복식에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개방함으로써 재료의 현대적 성격을 강조한 측면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현대 산업의 기성 오브제를 사용한 T. 뮤글러의 작품이다. 현대 과학 문명의 산물들이 복식의 오브제로 등장함으로써 현대 과학의 리얼리티가 환상적으로 재현됨과 동시에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인간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실험성은 현대 복식에 있어서 상호 텍스트성의 예술로서 복식의 새로운 카테고리 형성하고 있다. 그 예로 1992년 플러시스 그룹에 의한 「의상과 사진의 퍼포먼스」<sup>19)</sup> 전이라든가 건축가들이 자신의 건축세계를 보이기 위한 의상과 건축의 퍼포먼스 등을 들 수 있다(그림 9).

이것은 의복 역시 단독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 병행 인용을 통한 상호 텍스트성을 가짐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복식은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열린 사고, 열린 사회'라 할 수 있다.

### 3) 미래적/퇴보적 유토피아 지향의 의복

복식의 측면에서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19) 1992년 5월7일 코펜하겐의 티볼리 공원에서 플러시스 작가들이 옛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연출함.



<그림 9> 피터 아이젠 만과 복식  
(Joseph Hutchins의 디자인, *Vanity Fair*, 1996. 가을 p.174)

에는 순수예술가들의 작품 못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방가르드 복식에 표현된 유토피아를 향한 이상향의 추구는 정치적 패션으로서의 미래적 유토피아와 비 문명세계에 대한 동경으로서의 퇴보적 유토피아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붕괴 및 그 여파는 밀리터리 룩이 레이어드 룩, 그런지 룩과 부합되고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섞이고 혼합되어 혼란스런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그라피티 패션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단히 강렬한 충격과 복잡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가와쿠보(Rei Kawakubo)는 아이룩을 도구로 휴식할 곳이 없는 전쟁 불구자의 절망, 전쟁의 비참과 같은 유토피아의 부재, 불확실성의 세대가 주는 헤타토피아의 세계를 다양한 감정을 통해 설명해 주고자 하였으며<sup>20)</sup>, 케더린 햄넛과 언더그라운드 디자이너인 존 리브, 모스키노, 카스텔 바작은 극도로 발달된 소비문화와 과학문명, 핵 폭탄으로 인한 전쟁과 대량 학살,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고발 등을 그라피티 패션을 통해서 보다 극명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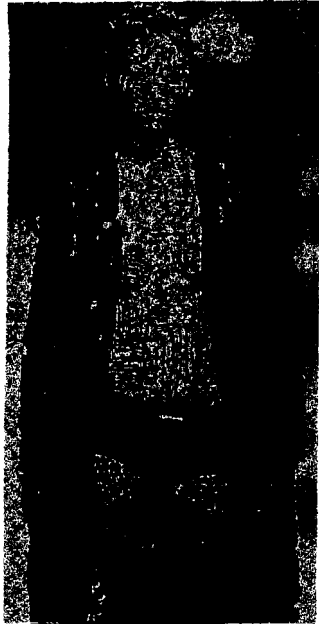
또한 아방가르드 복식 디자이너들은 원시적 세계로 돌아 가고픈 퇴보적 유토피아를 표현하였



<그림 10> K. Hamnett & Mrs. Thatcher  
(Mcdermott & Catherine, 1987:43)

다. 이들의 원시 자연에 대한 동경은 주로 자연물을 의복으로 형상화시키거나 자연물 그대로를 장식하는 자연성 복식과 노출지향의 누드, 바디 페인팅류의 문신(tattoo)을 이용한 원시성 복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갈란테(Maurizio Galante)와 켄디(Fendi)는 바디 페인팅을 응용해 아프리카인들의 나체에 가까운 의상과 토속적인 문양과 장신구를 이용한 원시적인 의상을 선보였다(그림 11). 이러한 원시주의 양식은 인간의 행복과 선행 같은 유토피아적 견해가 문명이 지나는 제약성보다 우선한다고 믿었던 계몽주의 시대에 구체화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 사회가 산업화,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병폐가 커짐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발전된 과학과 기술로 황폐화되는 인간성과 불확정적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의 상실, 즉 퇴보적 유토피아의 한 양상으로 자연과 비문명 세계에 대한 향수가 복

20)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경춘사, 1995. pp. 381-382.



<그림 11> Maurizio Galante (98 S/S)의 작품 (*Fashion News*, Vol.44, p.79)

식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소외적 적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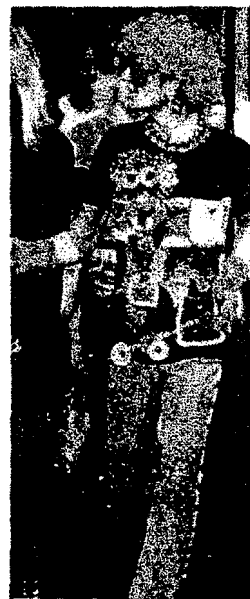
1) 반 부르조아적 저항의 의복

19세기 후반 이후 모더니즘의 미적 모더니티, 그것의 급진화는 전체 부르조아 가치체계를 붕괴시키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부르조아 문화에 대한 저항은 복식에서도 보여지는데 이것은 반 패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 부르조아주의는 부르조아의 고상한 취미를 부정하고 대중과 결합시키려고 키치와 결탁한다. 그러나 1950~1960년대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서는 반 패션의 주체로서 엘리트가 아닌 대중 자신에 의한, 소수집단이긴 하지만 하위문화 스타일에 의한 문화가 부르조아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반 부르조아적 저항성은 부르조아

상업문화에 완전히 굴복·흡수된 키치와 같은 혼성모방과 비판, 저항으로서의 주변부 문화로 존재하게 된다.

키치 유형은 과잉장식, 부적합성, 모조품의 활용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Y. 코니시의 현란한 색채의 가발과 의상, 액세서리 등은 저속하고 단정치 못한 키치의 미적 요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산만한 색상의 복장과 주렁주렁 단 과도한 액세서리의 사용은 '단순함을 거부'<sup>21)</sup>한다는 키치의 특성을 나타내며 부가적인 장식에 대한 무질서하고 현란한 느낌은 품위를 격하시키고 있다(그림 12). 이러한 복식에서 키치는 과거 미적 관념에 대한 반발과 신선한 활력소의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한정된 디자이너의 작품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스트리트 패션에서 더욱 그 가치를 유행시키고 있다.

반 패션은 패션체계 또는 패션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 정형적으로 탄생한 모든 스타일을 지칭하나 그중 특히 저항 의복이 반 패션<sup>22)</sup>에 해



<그림 12> Yoshiyuk Konishi(96 S/S)의 작품 (*Collection III*, 1996, p.143)

21) Avrabam Moles, 엄광현 역, 『키치란 무엇인가』(서울 : 시각과 언어, 1995), p.26.

22) Fred David,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161.

당된다 하겠다. 반 패션으로서의 스트리트 스타일은 하위문화의 물질문화인 의복과 장신구를 자주 표현하며, 또한 패션쇼에서도 나오지 않는 스타일의 개성과 젊음을 마음껏 표현한다. 나날이 변할 수 있는 룩의 결과로, 전적으로 개인의 표현에 근거한 이런 의복의 자유는 1980년대 초 이후 특별히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어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후기 자본주의는 패션에서 다양한 하위문화 요소의 스타일이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주류인 패션과 여러 가지 형태로 공존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하위문화의 저항적 요소는 상업 문화와 타협 또는 초월로 변질하여 본래의 색채가 퇴색되었다. 결국, 현대 아방가르드의 의미는 이런 제도화된 새로움의 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화된 새로움의 추구는 자본주의 경제구조 내부에서 정당화된 소비생활로 전치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런 아방가르드도 전문성을 띠는 직업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하이 패션과 하위문화 패션과의 관계에 중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패션은 순전히 자본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써만 기능하고, 저항문화 등이 본래 의도한 '이미지 전달의 수단'이라는 측면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는가를 볼 때 윌슨(Wilson)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음을 지적한다<sup>23)</sup>. 윌슨은 저항 패션의 요소들이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한 상업적인 목적과 타협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동시에 '작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항문화로서의 원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 2) 반 대중주의적 추상의 의복

아방가르드 복식의 특성으로써 반 대중주의는 대중들과 사회에 대해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난해한 추상디자인을 이끌며, 대중과의 결별을 위해 소의효과로 이끌게 된다. 이것은 인체미의 부정성을 통한 복식 형식의 해체, 시·공간개념의

해체 등으로 표현된다.

복식은 실제로 착용자의 성과 인체에 대한 이념을 표현하면서 인체를 표현하는 유일한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인체의 이상형을 추구하는 복식의 형태로부터 자유로와 지고자 하는 반항은 복식구조의 해체를 통해 복식구조를 의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인체형에 대한 무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는 반대적으로 인체에 대해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부여하지 않고 가장 사실적이고 순수한 인체를 극사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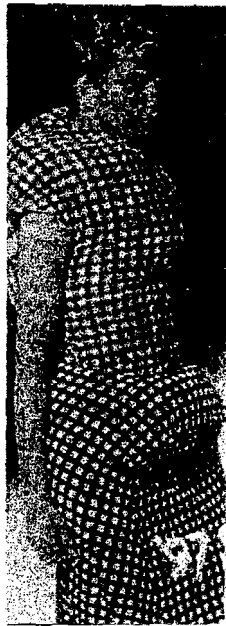
1930년대 달리나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초현실주의의 이야기식의 묘사적인 양식이 그 당시 의상 디자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경에는 분석적인 의미의 육체에 대한 초현실주의자들의 전통적인 묘사능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추상적인 것을 찾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25)</sup>. 많은 디자이너들은 인체를 추상적이고 생물적인 형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초현실주의로부터 취함으로써 이제 이세이 미야케의 익살맞은 디자인이나 맥퀸(Alexander McQueen)의 실루엣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그림 13) 패션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방법은 인체의 과장으로 인체를 인위적으로 특정 부위 혹은 전체적으로 확대 왜곡시키는 인체미, 복식미의 해체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맥락의 단절은 심리적·자리적·역사적 소의로부터 기인하며, 시·공간 개념의 해체를 가져온다. 웨스트우드(Westwood)는 특히 제3세계의 문화나 역사적 양식을 디자인 요소로 패러디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의 하나로 1960년대의 미니와 19세기 크리놀린을 변형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라크로와, 뮈글러와 맥퀸은 역사적 요소중 18세기 여성 코르셋의 앞 장식판인 스토마커를 현대 복식과 나란히 병치시킴으로써 그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패러독스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그림 14).

23) Wilson, Making an Appearance in Kate Boffin, des, Stolen Galances: Lesbians Take Photographs, (Harper & Row, 1991), p. 25.

24) A. Juliet, & E. Wilson, *Chic Thrills* (London : Pandor Press, 1992), p. 12.

25) 엄소희(1991), *op. cit.*, pp. 166-167.



<그림 13> A. McQueen(97 S/S)의 작품  
(Vogue Korea, No.8, p.185)



<그림 14> T. Mugler(97, 98 A/W)의 작품  
(Fashion News, Vol.43, p.9)

아와 같이 시 공간 개념의 해체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체계화, 관습화, 정형화된 단서들을 해체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출하고 있다. 결국, 최근의 아방가르드 복식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부정함으로써 시대양식, 민족양식, 개인양식이라는 장르의 구별을 무의미한 범주로 해체시키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진보적 절충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3) 반 권위주의적 해학의 의복

아방가르드 복식 중 기성세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볼 때 놀라운 충격을 주거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패션경향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희화와 왜곡이다. 희화와 왜곡은 권위주의에 대한 풍자의 형태로 현실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정신적인 무엇인가를 상징하고자 하는 의욕에 지배된다.

유패함을 동반하는 희화는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순수성으로부터 나오는 원초주의와 유아적 미성숙성과 비웃음을 동반하는 유치주의로 나타난다. 웨스트우드라는 남성 패션인 코드 피어스나 남성의 성기를 도식화하여 여성복에 도입시켰으며 남성의 성기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은 여성 수영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그림 15). 이러한 원초적 희화형태의 복식은 인체형태의 왜곡, 착장의



<그림 15> V. Westwood의 작품(가재창 III, 1993:110)

왜곡, 부적절한 맥락의 장식을 표현함으로써 신선한 문화적 충격과 함께 현대인의 고갈되고 매마른 정서에 유머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왜곡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또는 비례에 대한 무시'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희극적 형태인 풍자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정확한 모방에서 이탈되는 것으로 왜곡에 대한 적대적 표현은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혐오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오늘날 역설적인 방식으로 모든 예술에 나타나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로테스크는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뒷면을 이루는 일종의 부정적인 본보기로서 혼란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가치기준의 혼란, 인간소의 및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심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괴성이나 우스꽝스러움을 의미한다<sup>26)</sup>. 달리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왜곡과 변형은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드라클라 패션'이나 '악마주의 패션'등의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애그로 패션(Aggro Fashion)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애그로 패션은 엉클어진 헤어스타일과 왜곡된 복식형태를 보여주는 미야케, 핑키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공격적인 미를 연출한 백퀸(그림 16)의 작품 등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해학적 요소는 비현실적인 감동과 비인간적 소외의 세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며, 전통을 거부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성의 내적 표현에 바탕을 둔 아방가르드 예술의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또한 현대복식에 있어서 이러한 외의성 강한 의상의 출현은 이성적인 의식세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대인의 고갈되고 매마른 정서에 전인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카타르시스적인 유머를 느끼게 한다.

### 3. 초현실적 실험주의

#### 1) 환상적 산비주의 복식

전통적 고전예술이 객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면 20세기



<그림 16> A. McQueen(97 A/W)의 작품  
(Fashion News, Vol.42, p.145)

이후 아방가르드의 예술은 해방적 에로티시즘, 충격과 환상의 소격효과로 의외성의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초현실주의자 마그리뜨는 신체노출과 은폐, 즉 여성의 의복으로 감싸인 정숙한 육체와 의복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의복은 오히려 은폐된 신체를 암시한다는 역설을 내세웠다. 이러한 이론은 스키타파렐리나 뮤글러, 트루사디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그림 17), 이들은 에로티시즘적 표현을 통하여 그 동안 사회적 인습이나 합리적 사고 방식에 의해 억눌려 왔던 상상력을 발휘시킴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된 정신세계인 환상적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미의 추구로써 예술양식이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본능에 가까운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초현실주의적 에로티시즘이 암시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sup>27)</sup>. 1960년대에 유행되기 시작한

26) 안선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44.

27) 이효진, "현대 패션에 나타난 Eroticism에 관한 연구", 『服飾』 23호, 1994년 11월, pp. 118-119.



<그림 17> Trussardi(97 S/S)의 작품  
(*Fashion Show*, 96.11, p.66)



<그림 18> C. Dior(97,98 A/W)의 작품  
(*Fashion News*, Vol.43, p.24)

보일 듯 말 듯한 형태로서 시쓰루 룩은 1990년대 이후 노골적인 노출(그림 18)로 일반적 관점에서의 미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퇴폐적인 취향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시쓰루 룩은 전통미와는 반대로 퇴폐적인 미를 드러낸 것으로 퇴폐미는 곧 추의 개념으로서 아방가르드의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J. P. 폴피에는 1990년 가수 마돈나의 세계 투어를 위해 속옷 자체가 겉옷 단독으로 되어버린 바디 콘서트 룩을 발표하였는데 비밀스런 속옷을 공식적인 무대라는 외부로 드러냄을 통해 속옷이 겉옷으로 패러디된 것으로, 의복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게 되며 노출된 옷의 구조적 골격은 의복의 완전한 존재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감에 일종의 폭력적 해체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속옷으로 존재하던 것이 인체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이러니는 현대인들의 속옷에 대한 시대 착오성과 변용과 전위로 인한 의의성, 그리고 은밀함을 이용해서 장식성과 비합리성의 묘한 절충적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이후 노출이 점점 심해지

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션의 현상은 전통적인 미의 개념과 반대되는 새로운 미의 개념으로서 아방가르드의 본질과 상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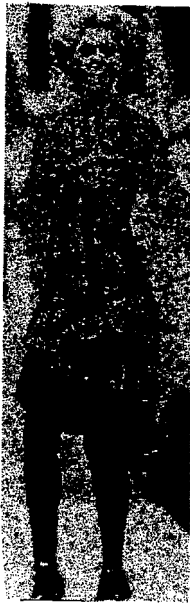
## 2) 오토마티즘적 변형과 마디에르적 실험의 의의

완전한 백지의 상태에서 그 상황을 몸으로 느끼고 대면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세계는 과거 디자인과 완전히 단절된 우연한 형태인 것이다.

1970년대 일본의 산예 디자이너들에 의해 본격화된 디자인의 세계는 인체와 복식간의 전통적인 유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디올과 같은 서구의 디자이너들이 추구한 기하학적 구성의 깔끔함이나 완성된 단위가 아닌 미완성의 덜 완벽한 것이다. 이러한 미완성과 불완전의 단계는 착용자에 의해 완결되는 불확정의 원리를 나타낸다. 특히 미야케, 야마모토, 가와쿠보, 미츠히로 등은 메기, 두르기, 걸치기의 요소를 도입해 복잡하게 레이어드 시킨 비 구조적인 실루엣을 연출하였으며<sup>28)</sup>, 이러한 방식은 착장 기술의 발달과

계산된 우연을 불러 일으키는 재단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자동 기술법이 우연을 만들어 내는 방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우연화시키는 방식이라면, 재관적 병치는 간접적으로 계산된 결과로서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재관적 병치는 맥락의 단절을 통한 백지 상태에서부터의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복식에 나타난 재관적 병치는 복식 아이템의 무의미한 병렬로 인해 발생하는 페러독스이다. <그림 19>는 개별적으로 완전한 형태와 의미를 갖고 있는 의상들을 무작위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함께 입음으로써 생기는 '낯설게 하기' 효과이다. 자켓과 그 위에 걸친 속옷, 겹겹이 입은 원색의 스커트, 즉 개개의 익숙하고 친근한 요소들을 원래의 상황적 맥락으로부터 이탈시켜 무의미하게 병치시킴으로써 낯선 충격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것은 상황적 이미지와 소재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생기는 아이러니와 페러독스의 효과이다. 이



<그림 19> Moschino(95,96 A/W)의 작품  
(*Fashion News*, Vol.27, p.153)

와 같이 복식의 비논리적 병치는 T·P·O 개념의 혼돈으로서 서로 다른 텍스트를 병행 인용하는 상호 텍스트성의 원리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소재의 변형'을 통한 마미에르적 실험성은 모호함과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중대한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구멍내기, 꾸기기, 찢기, 풀기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혁신적 소재가 줄지어 등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복식 소재의 무한한 창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패션은 믹싱 모드(Mixing Mode)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의미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다. 아주 상반된 것들의 믹싱, 즉 상호 텍스트성은 무엇을 입어야 할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입어야 할지의 문제로서 오늘날 패션의 재3물결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 3) 성(gender), 부와 빈, 창작과 모방의 양면적 의복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전까지 '타자'의 개념으로 소외되었던 제3세계, 유색인종, 여성에 관한 새로운 관심, 특히 여성을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 부각시키면서 기존의 부정적인 성관념에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영향을 발휘하면서 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해체되고, 서로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방하는 교차의복이 성의 양면성을 대표하게 된다. 1980년대 무르익기 시작한 중성적 이미지로서의 에이섹슈얼 특은 거시적 시각으로서의 듀얼리즘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양상으로 표출되었고 1990년대에 보다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들은 시간, 공간과 성별을 동시에 초월하거나 유머러스하게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를 믹스시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디자인 발상의 시작부터 성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그림 20).

이러한 복식에서 대립적 양식의 혼합현상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간격을 없앴듯이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과의 벽을 허물고 의복의 사회

28) 김주영(1995),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103.





<그림 20> Masaki Matsushima(95,96 A/W)의 작품(*Fashion News*, Vol.27, p.107)

적 상징성과 성의 정체성에 대한 경계선이 해제된 사고체계의 변화와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방향의 다양성은 부와 빈에 대한 표면적 개념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가난(貧)의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지적, 예술적, 보헤미안의 반항적 스타일로, 1960년대 히피와 펑크의 중고 스타일을 통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이후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의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청바지를 찢어서 너털거리게 만든 중고 패션은 과시적 위반으로서의 반근적 표현이며, 찢어진 청바지는 더 이상 하위 문화 패션으로서가 아니라 패션매체에 의해 유행하기 시작한 절충주의의 한 형태로 보여진다(그림 21).

또한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을 가능케 한 아방가르드의 발자취는 '새로움'이라는 창작개념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나 오늘날 그 자체가 양식화되고 상투적으로 됨에 따라 창작과 모방의 양면성을 띤다. 과거에 대한 복고는 현실세계에 대한 부정 혹은 일탈로서 오히려 일상의 불안을 해



<그림 21> V. Westwood(84 S/S)의 작품(*Polan*, 1984:42)

소할 수 있는 출구로서의 모방인 것이다. 모방을 중요한 수단으로 하는 패러디(parody)와 페스티쉬(pastiche)는 아방가르드의 중요 아이টে็ม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급문화의 상징을 소비사회의 상품처럼 세속화하여 패러디하는 경우는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법으로 그것은 고급미술이 지양하는 진지성과 엘리트적인 특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동안 구체적인 일상의 삶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던 예술을 삶 속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주로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친숙한 작품을 코믹한 주제로 전환한 풍자적 모방양식이다. 「모나리자」는 복식의 소재로도 자주 패러디 되고 있는데 모스키노는 티 셔츠에, 토드 솔드햄은 스커트에 모나리자를 패러디 하였으며, 카스텔 바작은 그야말로 모나리자의 신비의 미소를 해학적으로 확대 변형시킴으로써, 드레스 전체를 유머러스하게 장식하였다(그림 22). 이것은 고급예술의 심불인 모나리자의 유명도와 예술적 전통성에 힘입어 기호 해독자인 대중의 즉각적인 인지와 해석을 유도해 내려는



<그림 22> Castelbajac(Dictionnaire De La Mode, 1994:281)

포스트모던 양상이다.

이와 같은 창작과 모방의 양면성은 시공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는 이미지의 확장을 실현하고 있으나 상업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기존 예술성의 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나친 가벼움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있어 예술의 창조 개념은 보다 확장되고 좀더 새롭게 유연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도가 문화적 재생산의 잠재력을 가지고 현대인의 욕구를 한층 충족시켜 주리라 여겨진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방가르드의 유형을 미래적 역동주의, 소외적 적대주의, 초현실적 실험주의의 3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복식 표현기법을 고찰하였다.

복식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유형으로 미래적 역동주의는 미래주의적·과학 지향의 의복(기하학적 이미지, 운동감·속도감의 표현), 영역간

경계 해체적 의복(복합재료주의, 레디메이드 오브제), 미래적/퇴보적 유토피아 지향의 의복(정치적 이데올로기, 비문명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났고, 소외적 적대주의는 반 부르조아적 저항의 의복(키치, 비정형성), 반대중주의적 추상의 의복(미적소의, 맥락의 단절), 반 권위주의적 해학의 의복(회화, 왜곡)으로 나타났다. 초현실적 실험주의는 환상적 신비주의 복식(에로티시즘, 변용과 전위), 오토마티즘적 변형과 마피에르적 실험의 의복, 성(gender), 부와 빈, 창작과 모방의 양면적 의복으로 표현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복식의 내적 표현성을 종합하면, (1) 기존 복식 개념에 있어서의 전통성의 거부, (2) 복식 소재의 해체 및 복식 영역의 상호 텍스트성, (3) 물질문명 및 엘리트 패션의 조소, (4) 비문명 세계에 대한 원시적, 근원적 감성 추구, (5) 물질문명으로 인한 인간 소외감 표현, (6) 고급과 저급간의 복식경계의 해체, (7)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의 혼재, (8) 인체와 무관한 개방된 공간구성으로서의 열린 개념, (9) 불확정성으로서의 복합성, 애매성, 불규칙성 표현, (10) 마·추 개념의 해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대 아방가르드 경향의 복식디자인은 모던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실험적이고 비논리, 비이성, 무형식의 극단적인 표현양식으로 무제한적 허용을 허락하는 열림 개념의 마로써 새로운 추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정신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미래 대한 경고로서의 부정적인 면을 갖기도 하지만 또한 아방가르드 복식은 그 시대 그 사회 속의 소비자의 욕구와 시대정신의 변화를 정확히 대변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디자인을 풀어나갈 열쇠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시대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써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원갑, "현대 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 현암사, 1992.
- 김주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계간미술(편), 「現代美術用語辭典」, 서울:계간미술, 1984.
- 노주희, “아방가르드 개념 정초를 위한 고찰-비판적 사회학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서홍익, “초현실주의 회화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손주현, “낯설게하기 이론의 미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안선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윤난지 역, 「키네틱 아트」 서울:열화당, 1991.
- 이호진, “현대 패션에 나타난 Eroticism에 관한 연구”, 「服飾」 23호, 1994년 11월.
- 엄소희,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페러다임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엄소희, “초현실주의 예술사조와 의상디자인”, 「원주전문대학 학술논총」 제17집, 1991.
- 엄소희, 「현대복식의 페러다임」, 서울:경춘사, 2000.
- 염광현 역, 「키치란 무엇인가」 서울:시각과 언어, 1995.
- 최성만 역,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 서울:심설당, 1974.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경춘사, 1995.
- Juliet, A., & Wilson, E., *Chic Thrills* London : Pandor Press, 1992.
- Fred David,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Foggioli, R., *The Theory of Avant-Garde*, Cambridge Mass, belknap/Harvard, 1968.
- Hajo Düchting, *Robert & Sonia Delaunay* Köln : Benedikt Taschen, 1994.
- So-Hee Eom, Moon-Sook Kim, A Study on the Expression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the Aesthetics Theory of Verfremdu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Vol. 3 No. 1(2000, 2).